



사진 1



사진 2



사진 3



사진 4

초[燭] - 촛대[燭臺]

燭臺

촛대 위에 얹어 쓰는 초는 그 결합 방식이 세 가지이다. 초의 아랫부분에 구멍을 뚫고 촛대 위 뾰족한 초꽂이 속에 초를 꽂거나 원통형(圓筒形) 구멍에 그대로 끼우는 방식, 그리고 초의 등치를 애초 크게 만들어 그대로 받침대 위에 얹어서 사용하는 것이다. 이 가운데 두 번째, 원통형의 구멍에 끼워 사용하는 초의 경우는 아래쪽보다 위쪽이 굵다. 위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그 굵기를 늘려간 것이다. 원통형 구멍에 초를 쉽게 끼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끼운 초가 초꽂이에 딱 끼이게 되므로 초를 사용할 때 흔들리지 않아 보다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. 이것은 초가 초꽂이에 맞추어 수제(手製)로 제작된 것임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양이다. 요즘처럼 기계에 의해 규격화된 대량생산 방식으로 제작된 초와는 아무래도 그 정취를 비교할 수가 없다.

촛대는 용도에 따라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과 의·예식 때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. 일상생활용은 다시 바닥에 두고 사용하는 고정식 촛대와 이동용인 수초(手燭)가 있다. 수초는 집안에서 간단한 용무를 보기 위해 이동에 편리하도록 만든 촛대이다. 대부분 놋쇠와 철로 만들었으며, 다리가 없는 것과 다리가 달린 것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다.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고정식 촛대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 보다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형태가 많다.

사진1) 두석대촛대[豆錫大燭臺] - 와룡촛대// 조선시대// 밑지름 25.1cm, 높이 111.2cm// 국립민속박물관

사진2) 자경전진작정례의궤(慈慶殿進齋正禮儀軌) 가운데 촛대[燭臺]와 촛대부[燭臺附]// 1827년// 국립민속박물관

사진3) 무신년진찬의궤(戊申年進饗儀軌) 도병(圖屏) // 1848년// 국립중앙박물관

※1848년(현종 14) 대왕대비 순원황후 김씨(純元王后 金氏 : 1789-1857)의 육순을 축하하기 위해 창경궁(昌慶宮) 통명전(通明殿)에서 베푼 진찬의식을 정리한 기록. 도병 속에 와룡촛대들이 보인다.

사진4) 목제사자받침와룡촛대[木製獅子附臥龍燭臺]// 조선시대// 초지름 14cm, 높이 99.5cm// 은양민속박물관



사진 5



사진 6



사진 7



사진 8

불후리(火扇)를 달기도 하고, 촛대와 등잔을 겸해 쓰도록 만든 것도 있다. 불후리는 촛대에 달린 제구(諸具)로서 '화선(火扇)' 또는 '불부채' 라고도 하는데, 촛불의 한 면을 가리도록 부채 모양으로 붙인 부분을 말한다. 흔히 반사를 이용하여 조명을 더욱 밝게 하자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. 하지만, 바람 부는 방향을 가려 불이 꺼지거나 펄렁거리는 것을 막고, 부부생활이나 잠을 잘 때 벽을 향하게 하여 간접조명 방식으로 방안을 은은하게 밝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. 박쥐 혹은 나비, 둥근 원, 쌍원, 팔각형, 파초(芭蕉), 부채꼴 등 다양한 형태의 화려한 장식으로 매우 아름다운 조형미를 자랑한다. 뿐만 아니라 촛대를 사용한 후 닦고 조이는 등의 청소와 보관에 용이하도록 분해와 조립이 가능하다.



사진 9

반면, 의·예식용 촛대는 사발을 엮어놓은 듯한 복발형(覆鉢形)의 받침 위에 대나무 마디 모양이나 염주 또는 구슬 모양, 장구 모양을 한 기둥(竿柱)이 서고, 그 위에 짧은 초꽃이 축이 달린 받침접시를 엮어 초를 안전하게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. 여러 형태가 있지만, 더러 용과 연꽃무늬를 장식한 사찰 장엄(莊嚴)용 촛대도 볼 수 있으며, 궁중의 의·예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길이 1m가 넘는 커다란 두석대촛대[豆錫大燭臺 : 촛대기둥이 용이 서린 형상을 추상화한 것이라 하여 일명 '와룡촛대' 라고도 한다]와 같은 것도 있다. 재질은 토기(土器)·도기(陶器)·자기(磁器)·옥석(玉石)·철·놋쇠[鑄器]·나무 등 다양하다. KEA



사진 10

사진 및 자료 / 국립민속박물관, 국립중앙박물관, 온양민속박물관, 한국등잔박물관
글 / 민병근(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)

사진5) 옥석쌍촛대[玉石雙燭臺]// 조선시대// 높이 46cm// 한국등잔박물관

사진6) 철제은입사쌍촛대[鐵製銀入絲雙燭臺]// 조선시대// 밑지름 13.5cm, 높이 20cm// 국립민속박물관

사진7) 목제죽절문쌍촛대[木製竹節紋雙燭臺]// 조선시대// 밑지름 14cm, 높이 34.1cm// 국립민속박물관

사진8) 백자죽절문촛대[白磁竹節紋燭臺]// 조선시대// 밑지름 9.5cm, 높이 14.5cm// 국립민속박물관

사진9) 목제부귀다남등경검용쌍촛대[木製富貴多男紋燈檠用燭臺]// 조선후기// 높이 64cm// 한국등잔박물관

사진10) 놋쇠박쥐문파초형광배촛대[鑄製蝙蝠紋芭蕉形光背燭臺]// 조선시대// 밑지름 18.5cm, 높이 79.8cm// 국립민속박물관